# SK이터닉스 (475150)

## 부자 새아빠가 생겼다

유틸리티/건설
Analyst 문경원, CFA
kyeongwon.moon@meritz.co.kr

Meritz Research 2026. 2. 13

### SK-KKR,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 함께한다

12일 언론에 따르면 KKR은 SK디스커버리가 보유한 SK이터닉스 지분 31.03%를 인수.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상황이며 2~3달 안에 딜 마무리 예상. KKR은 이외에 SK이노베이션 E&S, SK에코플랜트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패키지를 2,5조원에 인수(블룸SK퓨얼셀은 제외)

SK의 핵심 계열사와 KKR은 현금을 출자하여 JV를 세울 예정. 나누어져 있던 SK의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통합하고, KKR의 재무적 역량을 활용한다는 계획. 해당 JV는 SK그룹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맡을 것으로 예상

### SK이터닉스,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

SK-KKR JV 조성이 초기 단계인 만큼 지배구조는 불확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JV 설립 취지인 만큼, 당사는 JV 산하에 SK이터닉스가 편입되는 구조가 유력하다고 생각

SK이터닉스는 국내 최초로 착공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개발. 국내 태양광과 ESS 개발 시장에서도 메이저 개발사. JV가 EPC, 운영, 유지, 보수 등을 맡고 SK이터닉스가 초기 개발을 담당한다면 이상적인 역할 배분이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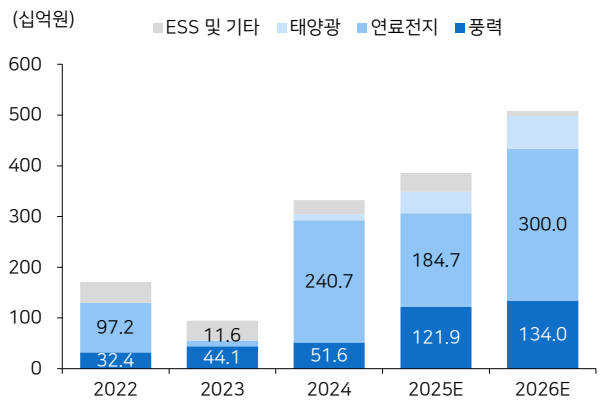
동사와 같은 디벨로퍼에게 자금 조달 능력은 제조업으로 따지면 CAPA와 같음. 모회사로부터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음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자원의 양과 종류가 커질 전망

### 2025년 보여준 이익 성장, 2026년, 2027년에도 이어진다

국내 대기업과 4Q25 RE100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태양광 사업의 성장세 뚜렷. 2026년부터 ESS 중앙계약입찰을 통한 이익 성장도 엎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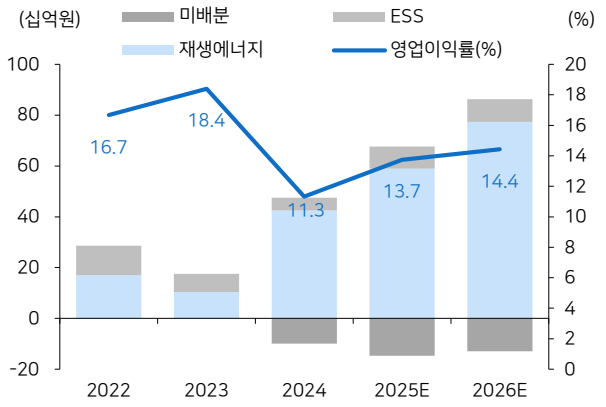
2026년 영업이익은 733억원(+38.3% YoY)를 예상. 2026년 연간 총 개발 규모는 300~400MW 수준으로 예상되나, 향후 GW 급으로 커질 가능성에 주목

그림1 부문별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iwi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서 해당 추천 종목을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